# 상처를 이기는 믿음

성경말씀: 렘10:17-24

## 배경

인간의 공통 소망: 만사형통, 이빨 치료 이야기
인생은 무엇인가? 실망과 고통의 연속이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눅17:1), 실수와 상처와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앞으로 넘어지는 자와 뒤로 넘어지는 자가 있다. 이겨내야 한다.
구약성경의 한 인물: 예레미야, 뜻: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
BC 625년부터 BC 585년까지 약40년 동안 사역함
바빌론의 3차 침략: BC 606, 597, 586, 이집트에서 생을 마쳤다. 눈물의 대언자

## 그의 부르심

요시야 왕의 시대, 제사장의 아들
렘1:5: 뱃속에 수태되기 전에 세우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말들을 주심(9절)
주님의 말씀의 내용: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나 유다를 치리라. 바빌론을 섬기라.
주님의 약속: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놋 성벽,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부르심의 대가: 민족을 치는 말씀을 선포해야 함. 백성이 등을 돌리고 친척들이 등을 돌렸다.
심지어 그는 결혼하지 말하는 명령을 받았다. 16장 1-4절: 아내, 아이들을 두지 말라.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이다. ★★★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렘10:19)

## 그의 상처와 고통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이 생긴다. ★★★
원인: 극심한 우상 숭배(렘10:2-3)
 이교도들의 길로 간다. 하늘의 표적들을 구한다.
결과: 사람이 짐승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14절).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치장하는 것 등 세상의 것에만 신경을 쓴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영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
 11절(우상 숭배의 대상 신들)
 18절, 20절(우상숭배자들), 괴로움이 임한다. 자녀를 잃는다. 나라를 잃는다.
 믿음의 자유를 잃는다. ★★★
 여기에 예레미야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
우리는 어떤가?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는가? ★★★

## 1. 실망과 고통은 오게 마련이다

믿는 자에게도 실망과 고통은 오게 되어 있다.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만사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평생 실망과 고통 중에 살았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실망과 고통이 배로 증가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실망과 고통이 생긴다.
모세는 하도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 죽여 달라고 간청했다.
2010년에 우리는 우리 앞에 고통과 실망이 있을 것을 예측해야 한다. 면제가 없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 고통과 실망이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

## 2. 실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다.
26장: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28장: 동료 중 하나인 대언자 하나냐가 그를 대적하였다.
36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함(대언의 말씀을 전할 때)
38장: 시드기야 왕이 백성에게 굴복하여 그를 말기야의 지하 가옥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물은 없고 진흙 진창이었다. 진창 속에서 빵을 먹지 못해 죽게 되었다.
39장: 예루살렘의 함락, 침략자들이 왕의 눈을 빼는 것을 봄
43장: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리를 전하다 순교하였다.

> 20장 9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 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비극을 겪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떤가? ★★★
<u>이게 하나님의 뜻일까</u>? 고민이 되지만 결코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에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부러지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면 그분이 흥하게 된다.
우리 눈에 일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 안에 닻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

## 3. 실망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진다.

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10명 정도가 회심한 것으로 보였다. 나라가 망했다. 백성이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내셨다. ★★★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질문
예레미야와 같나이다(14절). 엘리야와 같나이다(권능의 사람).
예레미야는 고통과 실망을 아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과 같다니 이 얼마나 큰 영예인가? ★★★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실망과 고통을 가장 많이 경험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세리와 창녀들 같이 영이 가난한 소수 외에는 모두 그분을 배척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참았다(히12:2).
롬8:28, 다음의 약속 29절: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과 수치와 상처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

## 결론

상처를 가져야 한다.
상처와 실망은 오게 되어 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넘어지는 자와 뒤로 넘어지는 자가 있다. <u>앞으로 넘어져야 한다</u>.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다.
2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